

# 협회소식

## ▶ 병원 장례식장 설치 관련 건의서 대법원, 복지부 건교부 등 부처에 제출

대한병원협회가 3월 5일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병원 장례식장 설치와 관련한 건의서를 대법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냈다.

건의서는 병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병원협회는 현재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면서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폐쇄할 경우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게 되고,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야기될 것임을 지적하는 건의서를 냈다.

## ▶ “종합병원 기준강화, 비영리법인 회계감리” 등 문제조항 수정 – 의료법 개정 공청회서 병원계 입장 밝혀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환경의 변화와 의료제도 발전 측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의료행위의 모호한 정의’ ‘종합병원 기준강화’ ‘비영리법인 회계감리’ ‘임상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신설’ 등 국민 건강권을 저해하고 의료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3월 15일 오후 보건사회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지정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원계 의견발표에서 성 총장은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해 대법원판례대 투약을 포함하여 정의하든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의료행위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선 의료법의 목적이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있는만큼 이를 법률로 정하려는 것은 의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의료체계 재정비 차원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상진료지침에 관해선 “본래 취지와 달리 정부가 진료의 규격화, 획일화를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등의 틀로 활용할 경우 의료수준의 후퇴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하면서 전문학회에서 자율적으로 학문적 진료지침을 마련토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종합병원기준 강화(100병상~300병상)에 대해선 정부가 재정적, 제도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장원리에 맞게 자연스럽게 기능개편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정적 지원(중벌가산율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강제로 종합병원 기준을 강화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당분간 현행제도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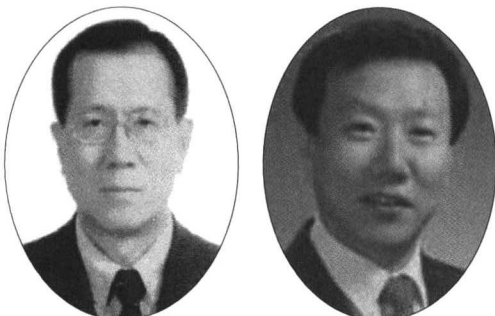
## ◀ 서울시병원회장에 허준웅 회장 재선 예산 1억6000만원 확정, 차기회장 김윤수 원장

서울특별시병원회 회장에 허준웅 현 회장(왼쪽 사진, 명지성모병원장)이 재선임 됐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앞으로 2년간 서울시병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됐다.

3월22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서울시병원회 제29차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선출에 이어 현 감사인 한원근 강북삼성병원장과 김갑식 동신병원장이 각각 유임됐다. 또한 최창락 자동차보험심의위원장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정총에서는 회원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주력하기로 하고, 1억6000만원의 새 예산안을 확정했다

한편 총회에선 김윤수 서울대윤병원장(오른쪽 사진, 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이 서울시병원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 협회소식

## ▶ 간호관리로 차등제 시행 유보 강력 촉구 인력수급, 수가합리화 선결과제!

간호관리로 차등제 개선안에 관해 병원협회는 구인난 심화 등 병원계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간호인력 수급대책이 마련될때까지 시행을 유보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3월 26일 정부가 간호서비스 확충을 명문으로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간호관리로 차등제 시행 보류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수가체계의 합리화와 대체인력 활용 등 간호인력 수급방안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 ◀ 병원관리 연수, KOICA 주최 병협 주관 이라크서 15명 참석 4.16-30일까지 진행

대한병원협회는 2007년도 병원관리연수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재 신장범)의 후원으로 ICTC 국제협력연수센터에서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견학 및 산업시찰 포함) 실시했다.

연수참가대상은 의료관련기관 근무자(경력 5년 이상), 병원관리 책임자 및 보건의료정책 입안자, 보건관리분야 연구원 등인데 올해는 이라크에서 15명이 참가했다.



## ◀ 병원협회, 충남 홍성서 사랑의 인술 양지·천안충무병원 등 의료진, 450여명 무료진료

대한병원협회는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농협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날 진료에는 양지병원·천안충무병원·중앙대의료원에서 내과와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치과, 한방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진료과 의료진이 참여해 연인원 450여명의 환자를 무료로 진료했다.

이 날 진료팀을 이끈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천안충무병원에서 심전도 검사(EKG)와 진단용방사선장비가 갖춰진 검진차량을 지원하고, 함림병원에서 초음파기기를 제공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있었다"며, "이번 무료진료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천안충무병원과 함림병원, 중앙대의료원, 양지병원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무료진료를 위해 한미약품과 한독약품, 중외제약 등에서 의약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